

『부장양문록』의 다층적 성격과 장편화 방식

곽 성 민*

차 례

- | | |
|---------------------|---------------------|
| 1. 서론 | 3) 반복된 여성수난담의 전개와 가 |
| 2. 『부장양문록』의 서사적 특성과 | 문소설의 면모 |
| 다층적 성격 | 3. 『부장양문록』의 장편화 방식 |
| 1) 번개된 여성영웅담의 전개와 여 | 4. 『부장양문록』의 주제의식 |
| 성영웅소설의 면모 | 5. 결론 |
| 2) 중첩된 결연담의 전개와 재자가 | |
| 인소설의 면모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장양문록』의 서사적 특성과 다층적 성격을 살펴보고 나아가 장편화 방식과 주제의식까지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장양문록』은 부계와 장벽계, 장원홍과 부월혜라는 복수의 남녀주인공들이 등장하여 다층적인 성격을 보이는 작품이다. 이때 1~3권까지는 장벽계의 영웅담을 기저로 부계와 장벽계의 결연담이 중점적으로 서술되고, 4~5권은 부월혜의 수난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양문록』의 다층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3권과

*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4~5권을 양분하여 각각의 서사적 특성을 살펴야 한다.

먼저 『부장양문록』의 1~3권에 해당하는 전반부의 영웅담과 결연담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영웅담은 여성주인공인 장벽계의 일대기로 전개되면서 일반적인 영웅담의 순차 구조와 군담의 전개 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장양문록』의 영웅담은 장벽계가 응과급제 이전 전란에 참여하면서 군담이 축약적으로 등장하며, 전반부 서사는 장벽계의 영웅담 보다 부계-장벽계-윤선강으로 이어지는 결연 과정을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부장양문록』의 여성영웅소설적 면모를 확인함은 물론 한 남성 대 두 여성의 결연 과정을 그리는 남장결연담을 통해 재자가인소설의 면모 또한 확인할 수 있다.

1~3권에서 영웅담과 결연담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면, 4~5권에서는 부월혜를 중심으로 여성수난담이 중점적으로 서술된다. 부월혜는 다양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장원홍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있다. 여기서 가문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 관습이 구조적으로 형상화된다. 즉 『부장양문록』은 전, 후반부에서 여성주인공의 영웅담과 결연담, 그리고 여성수난담을 통해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 재자가인소설의 서사 구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만드는 것이다.

한편, 『부장양문록』에서는 복수의 결연담이 서사 전반에서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복수의 결연담은 서로의 서사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며,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도, 교차적으로 서술돼 장편의 분량을 확보한다. 특히 서술의 중심이 부계와 장벽계의 결연담에서 장원홍과 부월혜의 서사로 교차하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러한 유기적 흐름의 중심에는 위왕 서사가 자리하고 있다.

주제어: 부장양문록, 이현경전, 장편여성영웅소설, 다층적 구조, 장편화 방식, 갈래교섭

1. 서론

『부장양문록』¹⁾은 정병설 교수가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훌륭한 습합을 보이는 작품”²⁾으로 평가한 이래 여러 연구자들이 이 작품을 진지한 여성의식을 보이는 여성영웅소설로서 평가하며, 그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영웅소설로서 작품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물론 또한 여성인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³⁾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부장양문록』이 지닌 다층적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따른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부장양문록』의 다층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영웅소설의 면모에 집중해 여성영웅소설로서 보편적인 구조적 특성만을 깊이 탐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장양문록』의 여성영웅소설적 구조와 여성의식의 발현에 대한 부분은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다층적 성격의 특성과 그에 따른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부장양문록』이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요소와 가문소설의 서사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다층적 성격을 보이는 작품임을 인식하고,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⁴⁾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1) 『부장양문록』,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 이하 『부장양문록』.

2)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傳張兩門錄)>」, 『고전문학연구』 제19권, 한국고전문학회, 2001, 207~235쪽.

3) 이에 대한 연구로는 채윤미, 「<부장양문록>연구: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 -<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8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이병직, 「<傳張兩門錄>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김정녀, 「<부장양문록>의 욕망 구조 연구: 남주인공의 욕망 실현 과정과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호, 우리어문학회, 2010; 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론총』 제5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4) 김태영,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서사의 확장과 장편여성영웅소설로의

『부장양문록』과 『이현경전』의 서사 요소를 비교해 『부장양문록』의 여성 영웅소설적 면모와 가문소설적 면모를 확인하고 있어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장벽계의 일대기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장양문록』 전반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부장양문록』은 여성영웅형 인물인 장벽계뿐 아니라 열녀형 인물인 부월혜의 서사가 작품 후반부에서 주요하게 전개된다. 결국 장벽계의 일대기에 집중해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이 작품의 내적인 의미를 축소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부장양문록』은 1~3권에서 여성주인공인 장벽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다가 부계와 장벽계의 혼인 이후인 4~5권부터 또 다른 여성주인공인 부월혜 중심의 서사로 전환된다. 그래서 1~3권을 전반부, 4~5권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복수의 남녀주인공이 펼치는 결연담과 여성주인공의 영웅담이 결합한다. 그리고 결연담과 영웅담은 여성주인공인 장벽계의 남장모티프로 결합한다. 후반부는 부월혜의 수난담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부월혜는 가문 내에서 고부갈등으로 인한 수난을, 가문 외에서 위왕의 겁박과 유리표박에 의한 수난을 차례대로 당하고 있다. 여기서 부월혜가 당하는 수난은 모두 위왕의 늑혼에 기인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로 보았을 때 부월혜의 수난은 혼사장애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장양문록』의 서사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부의 중심 서사인 장벽계의 영웅담과 부계-장벽계의 결연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물론 후반부의 중심 서사인 부월혜의 여성수난담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전개-〈이현경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66집, 겨레어문학회, 2021.

2. 『부장양문록』의 서사적 특성과 다층적 성격

1) 변개된 영웅담의 전개와 여성영웅소설의 면모

『부장양문록』의 여성주인공인 장벽계는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종일관 남성의 삶을 희구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아버지인 장상서를 따라 북해로 갔을 때부터 여공을 폐하고 남성의 학문인 천문서와 육도삼략을 익힌다. 장벽계는 이러한 기질을 바탕으로 남장을 실행한 후 남성 사회로 진출하며, 여성영웅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⁵⁾ 그렇기 때문에 장벽계의 일대기로 이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영웅의 영웅담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영웅담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장을 실행한 여성주인공이 초월계의 도움을 통해 영웅성을 획득한 후, 응과급제로서 남성 사회의 편입을 이룬다. 그 뒤 군담에서의 영웅적 활약을 바탕으로 지위가 극대화되는 서사가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이는 ‘남장-수학-응과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부장양문록』에서는 장벽계가 흥노의 난이 일어남에 따라 남장을 하고 곧바로 전란에 참여하면서, 응과급제가 군담 이후에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장벽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웅담은 ‘남장-출정입공-응과급제-지위극대화’의 구조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부장양문록』은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과 군담의 전개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장양문록』의 군담은 장벽계가 북해에 있을 때, 북쪽 흥노의 침입으로 시작된다. 이때 급작스런 흥노의 침입은 장벽계가 남장 후 전장에서

5) 장벽계는 진도람에게 전생에 쓰던 칼과 갑옷, 말을 얻어 영웅성이 극대화된 후 “평생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번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듯 장벽계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기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이 준바 슈운갑을 썰치고 비슈를 들고 청충마의 올라시니 의괴양양하여 진실노 범의 날기를 어드며 풍운을 어든 듯 평싱 소원을 오날날 일워시니 엇지 혼 번 죽기를 두려히리오” 『부장양문록』 권지 일, 12장.

활약할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홍노의 수장인 홍일대를 대적하기에는 장벽계의 능력이 부족하다. 홍일대는 천하 명장이면서 관우의 용력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⁶⁾ 그래서 장벽계의 앞에 진도람이라는 도인이 나타나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칼과 갑주, 말을 내어 주어 영웅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준다. 이로써 장벽계는 완전한 영웅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

한편, 북해에서 홍노의 침입이 일어났을 때, 명나라에서는 정 원수를 필두로 군대를 출병시켜 적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홍일대가 펼친 팔문 금사진에 의해 명나라군은 대패를 하고, 정원수는 홍노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하며 죽기만을 기다린다. 이때 백포소장으로 변한 장벽계가 홀연 나타난다. 장벽계는 홍일대의 팔문금사진을 홀로 깨부술 만큼 뛰어난 무용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내 홍노의 우두머리인 홍일대까지 죽인 후 전쟁을 명나라의 승리로 이끈다. 그 뒤 장벽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홀연히 떠나면서 『부장양문록』의 군담은 마무리 된다.

이렇듯 『부장양문록』의 군담은 여타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군담 전개 방식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주인공의 응과급제 이후 전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주인공은 남성주인공과 각각 대원수와 부원수로서 함께 출정한다. 그리고 적과의 전투 장면은 여성주인공의 뛰어난 전투 능력을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진법이나 병법을 통한 승리로 묘사되는 특징이 있다.⁷⁾

6) “금세에 홍노 대당 홍일되는 천하명장이라 천하독행하던 관운당의 용역과 유궁후래 갑주와 슈하의 혼넛 군졸이 업시 발산지력과 괴세지용이라도 능히 머리를 보전치 못하리니” 『부장양문록』 권지 일, 11장.

7) 『부장양문록』과 친연관계에 있다고 밝혀진 『이현경전』의 군담에서는 여성주인공인 이현경이 대원수, 남성주인공인 장연이 부원수로 출병한다. “왕니 친이 장찬디검을 들고 바로 서원슈를 취하거늘 마즈 서로 싸와 삼십여합의 승부를 결단치 못하더니 주왕니 세궁역간하야 회군코져 하거날 원수 거짓 꾀하야 진문을 허치고 다라난니 이어서 쏘흔 서북을 바라며 분주한 체하니...잇째 남경선위 반하야 드리오니 근심하사 서원슈를 하여금 회군말고 선우를 치라 하시니 표을 올려

그런데 『부장양문록』에서는 장벽계의 응과급제가 군담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북쪽 흉노군을 막기 위해 출정한 대원수는 제 3의 인물이고, 여성주인공인 장벽계는 의병의 입장에서 홀로 전투를 벌일 뿐이다. 이에 따라 장벽계가 천문서와 육도삼략을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병법 등의 지략 대결은 등장하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의 무용을 바탕으로 일대일 전투를 통한 영웅성의 발현이 묘사된다.⁸⁾ 그렇기 때문에 『부장양문록』의 군담은 전투 장면이 다채롭지 못하고, 분량이 축소되어 있다. 또한 장벽계와 남성주인공 부계가 다시 만남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부계의 영웅적 활약이 등장하지 않는다. 『부장양문록』의 군담이 보이는 이러한 측면은 남녀주인공의 능력 차이를 만들어 내면서 우월한 여성과 열등한 남성의 구도를 자아낸다.

초기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녀의 역할과 비중이 지나치게 여성에게 편중되면서, ‘여성 우위 구도’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군담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하진양문록』의 하옥윤, 『김희경전』의 장설빙, 『이현경전』의 이현경, 『홍계월전』의 홍계월 등은 모두 군담에서 진세백, 김희경, 장연, 여보국 등의 남성주인공보다 우위의 능력을 발현시키고 있으며, 위협에 처한 남성주인공을 구해 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여성주인공은 공후대신의 지위에 올라 천자의 신뢰를 가장 두텁게 받는 신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주인공은 사회적 활약에서도, 그리고 가정 내의 위상에서도 언제나 여성주인공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그려질 뿐이다.⁹⁾ 이때 『부장양문록』은 이들 작품 중에서도 여성주인공

노모의 병중호를 알리고 교대호를 간청호니 상이 유미호시다가 티학스 장연으로 부원슈를 봉호야 연이 현경을 교디호고 니현경으로써 셔대도독을 교디호야 연으로 십만군을 거느려 오랑키을 치고.” 『이현경전』, 상, 24~26장.

8) “홍일디 분연이 마즈 박홀서 사십근 철퇴로 내덜치니 소제 몸을 날여 말다릭 밋히 당신히엿다가 다시 도라드러 슈합이 못호여 홍일디 머리를 베혀들고 마상의 셔 춤추며 호진동의 날 디적하리 잇거든 밋비 나와 디적하라.” 『부장양문록』, 권지 일, 14장.

9)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영웅성의 발현이 여성주인공에게 편중되고, 우월한 여성과 열등한 남성의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된다. 이는 ‘여성 우위 구도’가 온전히 구현된 여타의 작품들과 대비해 보았을 때도 더욱 강화된 면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당쇼계 덕소하고 나와 과장의 드러가니 문득 선비 구랍갓치 모혀 글
제 어려으믈 능히 히제을 싱각지 못흐난 지 턱반이라 크게 가소로와 뒤
집지고 헛거려 관광타가 임의 시각이 다드르미 북을 울이니 붓을 드러
편시의 휘지하여 밧치미 금오의 그림지 움지 아엿더라.¹¹⁾

위의 인용문은 장벽계의 응과 장면이다. 장벽계는 어려운 글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는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여유를 부리다 종료 북이 울린 순간 단번에 글을 적어 제출하는 文才를 보인다. 특히 천자가 여러 답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장벽계의 글을 보자마자 대단함을 느끼는 장면¹²⁾은 장벽계의 문제가 여타의 남성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또한 급제 이후 흥노왕이 보낸 글을 군신들이 읽지 못하자 장벽계가 천자에게 불러가 그 글을 읽고 흥노 사신을 꾸짖어 돌려보내는 서사¹³⁾를 통해 여성주인공이 모든 남성들, 그 중에서도 남성주인공인 부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강조해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장양문록』의 영웅담은 ‘남장-수학-출

로』, 『한국문학논집』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61~67쪽.

10) 『이현경전』에서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현경이 대원수로, 장연이 부원수로 출병하여 함께 전공을 세우고 있다. “상이 대찬하시고 현경으로 병부상서청취후를 봉하시고 당연으로 니부상서거주후을 하시시고.” 『이현경전』, 상, 29장.

11) 『부장양문록』, 권지 이, 29장.

12) “천즉 여러 시권을 보시되 천심이 불합하여 의례하시더니 홀연 한 장 글을 어드니 용식 뛰놀고 승운이 어리어 풍운의 조화와 천니에 무궁함을 겹쳐 장강덕회를 기우려시니 보기를 다 못하여 회동안식하시고 무릎홀 쳐 인지며 괴지라” 『부장양문록』, 권지 이, 29장.

13) 『부장양문록』, 권지 삼, 35~42장.

정입공-웅과급제-지위극대화'의 서사 단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때 웅과급제보다 출정입공 단락이 먼저 전개되면서 군담이 여타의 여성영웅소설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¹⁴⁾ 실제로 영웅소설은 물론 여성영웅소설에서 영웅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은 군담을 통한 전장에서의 활약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형 인물이 등장하는 유형의 작품들에서 군담은 필수적으로 등장하며, 전투 장면으로 영웅형 인물의 활약상이 묘사된다. 특히 여성영웅소설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영웅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차례의 군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담이 전체 서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는 『부장양문록』을 여성영웅소설로서는 약간은 군더더기가 있어 보이는 초기 형태로 바라보며,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여성영웅의 활약상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남녀의 신의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화락한 공존을 문제 삼고, 영웅담보다 결연담이 위주가 되는 서사구조¹⁶⁾를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2) 중첩된 결연담의 전개와 재자가인소설의 면모

『부장양문록』에서 결연담은 복수 주인공의 결연 과정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복수 주인공의 결연담이란 부계-장벽계의 결연담, 장벽계-윤선강의 남장결연담, 장원홍-부월혜의 결연담이다. 이 세 결연담은 부계-장벽계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장벽계-윤선강의 남장결연

14) 『부장양문록』과 동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홍계월전』에서는 서사 전반에서 총 4차례의 군담을 통해 여성주인공인 홍계월의 영웅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장편화 경향을 보이는 『하진양문록』, 『김희경전』에서도 3차례의 군담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15) 『부장양문록』과 동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홍계월전』에서는 서사 전반에서 총 4차례의 군담을 통해 여성주인공인 홍계월의 영웅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장편 여성영웅소설인 『하진양문록』, 『김희경전』에서도 3차례의 군담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16) 이병직(2009), 위의 논문, 24~25쪽.

담이 결합하고, 장원홍-부월혜의 결연담이 병치되면서 복합적인 구도가 된다. 그런데 장원홍-부월혜의 서사는 혼인 이후 여성수난 과정에 초점이 가 있어 간략하게 서술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양문록』의 결연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계-장벽계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장벽계-윤선강의 남장결연담이 어떻게 중첩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부계-장벽계의 결연담은 傅·張 양 가문의 정혼으로 시작된 후 남장한 장벽계가 군담 이후 부계와 다시 만남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다시 생각해던 당후는 임의 공후대신이 되어 상충이 만조를 기우리고
 빅노 공경흥미 허니 추복하는지라 제 임의 본적을 즐겨 드러너지 아니
 하며 부명이 엄하시니 제어치 못하여 항복바들 묘책이 업거이와 윤씨
 쏘흔 내게 빙패를 바드며 일실의 달야하야 나의 괴물이 님의 되엿거날
 ... 즈문이 설마 윤가 일여즈를 항복밧지 못하리오 의스 이의 밋쳤는지
 라¹⁷⁾

부계는 남장한 장벽계의 정체를 알아차린 후 그녀에게 남복을 벗고 여성으로 돌아가 자신과 혼인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장벽계는 “그딴 말갓치 여즈라도 당당흔 공후대신이 조복을 벗고 관면을 던져 츠마 엇지 네 안히되리오”¹⁸⁾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다. 부계는 장벽계가 공후대신으로 만조백관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복 받을 묘책이 없음을 한탄하며, 대신 또 다른 여성인물인 윤선강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부계와 장벽계의 관계에서 장벽계가 부계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후에 전개되는 부계-장벽계의 결연 과정에서 장벽계의 결연 거부와 부계의 결연 의지가 상충되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곧 남녀 대립에 의한 결연의 지연인 것이다.

17) 『부장양문록』, 권지 이, 47장.

18) 『부장양문록』, 권지 이, 46장.

장벽계-윤선강의 남장결연담은 군담에서 장벽계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도인 진도람에 의해 시작된다. 진도람은 장벽계가 겪을 여러 사건들을 가르쳐주고 홀연히 사라진다.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점은 진도람이 장벽계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전소설 중에서는 예언구도¹⁹⁾로 서사 전개 of 유기성을 확보하고 예언의 실현을 통해 숙명론적 세계관을 제기하는 작품들이 있다. 예컨대 『숙향전』, 『창선감의록』, 『남정기』²⁰⁾와 『홍계월전』²¹⁾ 등이다. 예언구도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기 때문에 서사 전개에서 집중적으로 서술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만든다.

이 길노 나아가 디진의 드러가 혼 뱃흙의 디진을 파하고 일흙을 청스의 드리우러이와 적진을 아라혼 후 일흙을 요구치 말고 도망하여 남으로 향하면 죽연 만닐 스람이 잇실거시오 그디 부모는 늑연 상이할 익이 잇시나 필경 평안이 도라와 혼당의 즐기니 성심도 천의를 어긋여 찾지 말나 쏘 타일 부성을 비척지 말지어다 내교의 호발이나 어긋면 대화장 진히리니 명심계지 하여 내 말을 어긋지 말고 심곡의 사겨 잇디 말나²²⁾

위의 인용문은 진도람이 장벽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을 해 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진도람은 전생애 쓰던 칼과 갑주, 말을 받아 영웅적 능력을 높인 장벽계에게 이 길로 나아가 오랑캐 군을 섬멸하라

19) 예언구도란 작품의 도입부에서 훗날의 일을 예언하고 작품의 마무리 부분에 이르러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구조이다.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04쪽.

20) 17세기의 작품인 『숙향전』, 『창선감의록』, 『남정기』에서는 예언구도가 여성 수난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정길수(2005), 위의 논문, 105쪽.

21) 『홍계월전』의 예언구도는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이 계월과 보국의 스승인 광도사의 예언에 따라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광도사의 예언은 홍계월이 ‘세 번 죽을 액’에 대한 것이고, 장사랑의 난, 서번·서달의 난, 오·초양왕의 난으로 실현된다.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단국대 103장본 계월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집』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55쪽.

22) 『부장양문록』 권지 일, 11장.

고 명한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후 “일홈을 요구치 말고 도망하여 남으로 향하면 죽연 만날 스람이 잇실거시오”라고 일러주며 장벽계와 윤선강이 우연히 만날 수 있도록 만든다. 실제로 장벽계는 진도람의 예언대로 남쪽으로 길을 가다 윤어사를 만난 후 그의 집에 의탁하게 되고, 윤선강을 만나 남장결연을 이룬다. 즉 장벽계와 윤선강의 남장결연은 이미 전생부터 정해져 있었던 숙명인 것이다.²³⁾

남장결연담은 중국의 『옥교리』나 『평산냉연』 등 전형적인 장회체 재자가인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서사다. 이는 곧 17세기 이래 조선에 유입되어 『구운몽』, 『홍백화전』, 『낙동야언』 등 조선의 재자가인소설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조선의 재자가인소설에서는 여성의 남장을 통한 다른 여성과 재자의 연결, 이로 인한 한 남성과 두 여성의 결연 등의 서사가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²⁴⁾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윤선강의 남장결연담은 부계의 꿈을 매개로 부계-장벽계의 결연담과 결합하고 있다. 윤선강은 전생에서부터 장벽계를 따라 환생한 인물이기 때문에 장벽계-윤선강의 남장결연이 부계-윤선강의 결연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미 운명으로 정해진 일이다.²⁵⁾ 그래서 부계의 몽중에 노옹이 등장하여 부계와 윤선강이 인연을 맺게 한다.²⁶⁾ 이에 따라 장벽계와 윤선강은 만남-헤어짐의 과정을 거친 후, 곧

23) 윤선강은 장벽계의 풍채와 기상을 흠모하여 그녀를 따라 환생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계-장벽계-윤선강으로 이어지는 결연은 애초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숙명론적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봉늬선의 군의 풍취 의기를 흠선하여 군을 조츠 윤가의 여즈되엿느니 타일 천쥬미답이 되리라.” 『부장양문록』, 권지 일, 10장.

24)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103~105쪽.

25) “옥제 압히셔 바둑 두어 군니 지니 군니 스스로 부인니 되어 팔십 연 부성의 건즐을 밧들겿노라 덩약하고 나오니 또 봉늬선의 군의 풍취의기를 흠선하여 군을 조츠 윤가의 여즈되엿느니 타일 천쥬 미답이 되리라.” 『부장양문록』, 권지 일, 10장.

26) 노옹이 꿈을 통해 부계에게 윤선강을 보여주면서 인연을 맺게 만드는 것은 창을 가리는 발로 확인할 수 있다. 부계가 꿈 속에서 본 미인은 홍사 한 끝이 걸린

부계-장벽계-윤선강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남장결연담에 남녀 갈등이 중첩된다. 이렇게 볼 때, 『부장양문록』의 남장결연담은 재자가인소설에서부터 마련된 서사전통을 활용하면서도, 결연의 지연을 남녀의 갈등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창적인 면모로 재창작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부계와 윤선강이 우연히 만남을 이루는 순간부터 장벽계-윤선강의 남장결연담은 부계-장벽계의 결연담과 온전히 결합한 후 부계와 장벽계, 윤선강의 갈등을 통해 결연의 지연이 발생하는 서사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계-장벽계의 결연담은 부계-장벽계-윤선강의 결연 구도로 바뀌면서 한 남성 대 두 여성의 결연 과정으로 전개된다.

3) 여성수난담의 반복 전개와 가문소설의 면모

『부장양문록』의 후반부에서 주요하게 전개되는 여성수난담은 부월혜의 수난을 중심으로 묘사된다. 특히 부월혜가 겪는 혼사장애는 부계-장벽계의 혼인 이후 전개되는 주요 서사로서, 『부장양문록』의 주제의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동시에 서사의 확장을 통해 작품을 장편화시키는 데도 일조하기 때문에 자세히 고찰해 보아야 한다.

부쇼저 부등을 써나 천신만고을 격고 스오일 헝헝면 약한 기질의 억만지통 등풍환의 축상햐 병이나 촌가의 월여식조 피햐 다시 헝햐 히포만의 양취 태향산하의 이르러 병니 침고햐 교욱이 주야 동축 축햐 약물과 미죽으로 구호하더니 수식의 향츠햐 발햐햐 햐더니 도적이 햐냥과 의복 경보를 탈취햐 청여가지 도적햐 다라나니 소제 양천탄식 왈²⁷⁾

발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데 부계가 꿈에서 깬 후 윤참정의 집에 가 윤선강을 몰래 살펴볼 때, 윤선강이 모든 창을 닫으며 그 발을 치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부계가 본 미인이 곧 윤선강임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

27) 『부장양문록』, 권지 이, 66장.

후반부에서 혼사장애와 유리표박을 통해 여러 수난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인물인 부월혜는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전반부에서도 유리표박에 의한 수난을 당한다. 그런데 부월혜가 가출을 한 후 유리표박을 당하는 상황들은 장원홍과 재회가 일어난 후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때 부월혜가 당한 수난은 흔히 도로에서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질곡들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전반부에서 부월혜를 통해 그려지는 여성 수난은 서사 전개에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이 수절을 위해 고행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남성주인공과의 다시 만남을 극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월혜가 겪는 본격적인 수난은 전체 서사의 후반부에서 장원홍과 혼인을 이룬 이후 시작된다. 이때 전반부의 여성주인공인 장벽계는 부계와 혼인을 이룬 후 서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후반부는 부월혜의 혼사장애와 여성수난 과정이 주요하게 전개된다.

가문소설에서는 가문 내의 쟁충에 의한 혼사장애와 함께 가문을 벗어나 유리표박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수난이 종합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가문 내의 혼사장애는 주로 악인의 간계에 의해 실행되며, 개용단이나 미혼단과 같은 요약모티프²⁸⁾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요약을 통한 혼사장애는 일정한 서사 관습에 따라 구조화된다. 미혼단은 여성주인공이 수난을 당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의 인물에게 사용되어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이를 통해 여성주인공이 누명을 쓰면서 정신적, 육체적 수난이 전개된다. 또한 개용단은 복용자의 모습을 바꾸어주는 요약으로, 악인이 사용하여 여성주인공에게 간음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만듦으로써, 그녀가 육체적인 수난을 당하게 만든다.²⁹⁾

28) 개용단과 미혼주 등의 요약은 『소현성록』 이후 가문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모티프로서 일반적으로 영웅소설 등의 단편소설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주로 악하거나 열등한 인물들이 선하거나 우열한 인물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선하거나 우열한 인물들을 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부장양문록』에서는 위왕이 부월혜를 취할 것을 다짐한 후 천금을 주고 개용단과 미혼주, 오용단을 구해 그의 유모에게 주는 것으로 요약모티프가 등장한다.³⁰⁾ 위왕의 유모는 요약을 통해 부월혜의 시어머니인 화부인을 현혹시킨 후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부월혜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 미혼주에 정신이 흐트러진 화부인은 악인이 부월혜를 모함하는 말들을 모두 믿게 되면서 그녀를 지속적으로 질책한다. 이때, 부월혜는 시어머니의 질책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처소에서 출입을 자제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정순한 여성의 면모를 여실히 보인다.³¹⁾

미혼주와 함께 등장하는 요약은 개용단이다. 개용단을 복용한 악인이 부월혜의 모습으로 변해 그녀를 淫婦로 만들어 누명을 씌운다. 이미 미혼주에 현혹되어 정신이 흐려진 화부인은 눈앞에서 펼쳐진 부월혜의 간음 행위를 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부월혜는 옥에 갇혀 육체적 수난을 당하게 된다.³²⁾ 이렇듯 『부장양문록』의 후반부에서는 요약모티프를 통해 부월혜가 가문 내의 수난으로 혼사장애를 당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부월혜의 수난담은 가문 내에서 당하는 혼사장애로 끝나지 않는다. 요약에 의해 악인의 간계에 빠져 옥에 갇히게 된 부월혜가 위왕에게 납치되어 가문을 벗어난 후 여러 수난들을 당하기 때문이다.

위왕이 저의 용모를 디히여 불쾌지심이 불갓고 연이지심이 착급히여
저 비척히여 행복지 안니코 문득 정정흔 말이 몸돌고지 업게 흐를 당히
여 진노히미 기름가마를 쓰리고 핑형을 시험힐시 왕왕 네 영화를 맞지
아여 불복히니 네 명이 수유의 잇는지라 나의 영총과 핑형을 갈히여 바

29) 한길연, 「대하소설의 요약 모티프 연구 -미혼단과 개용단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10쪽.

30) “잇썩 위왕의 유피 지물을 호터 오용단 기용단과 미혼주 법을 비화 대스를 도모 흘식” 『부장양문록』, 권지 사, 21장.

31) 『부장양문록』, 권지 사, 22~29장.

32) 『부장양문록』, 권지 사, 29~33장.

드라 ... 왕이 익노호여 친히 칼홀 드러 치니 다리 슬리 썰러지며 싱혈
이 소스 홍군을 잡으되 소제 불변 안식호고 다리를 꾸지 안니호니 왕의
옥피 나아가 간호되 던히 이제 불승 기분호여 저를 죽이면 어딤 가 저
런 경국지식을 어더보려 호시는잇고³³⁾

부월혜가 위왕 궁에 납치된 후 당하는 수난은 기본적으로 가문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이 당하는 현실적 질곡과는 거리가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왕에 의해 부월혜가 당하는 수난은 팽형에 처하리라는 겁박, 그리고 다리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 등장한다. 또한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위왕에게 잡혀 겁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잉태했던 아이를 옥에서 낳은 후 자결까지 시도하는 수난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된다.³⁴⁾ 즉 대부분의 소설 작품에서 여성이 당하는 일반적인 수난은 여성이 현실적으로 당할 수 있는 질곡³⁵⁾을 묘사하고 있다면, 『부장양문록』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이 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질곡을 벗어나, 여성의 절개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수난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부장양문록』의 후반부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여성수난담은 부월혜의 절개 강조가 특징인 서사로, 가문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 관습이 구조적으로 형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장양문록』은 전, 후반부에서 여성주인공의 영웅담과 결연담, 그리고 혼사장 애담을 전개하여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서사 구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만드는 것이다.

33) 『부장양문록』, 권지 사, 39장.

34) “언필의 칼을 빼혀 즈문호니 옥이 미쳐 붓드지 못호녀 목이 상호고 성형이 소스
느니 급히 구호녀 싱도랄으드미 울며 고왈” 『부장양문록』, 권지 사, 41장.

35) 가문을 벗어 난 여성이 유리표박을 하며 당하게 되는 여성수난담은 흔히 도로에서 당할 수 있는 여성의 질곡들로 묘사되고 있는 편이다. 『숙향전』의 숙향이 도적 떼를 만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겪는 일들이나, 『쌍천기봉』에서 소월혜가 도로에서 자객을 만나는 서사, 몸을 의탁하던 집에서 여성의 유혹을 받아 간부로 누명을 쓰게 되는 서사, 타락한 여승의 유혹에 쫓기게 되는 서사 등이다.

3. 『부장양문록』의 장편화 방식

앞서 『부장양문록』은 여성주인공인 장벽계의 영웅담과 여러 결연담이 결합한 서사 구조를 지닌 작품임을 살펴보았다. 이때 부계-장벽계의 결연담과 장벽계-윤선강의 남장결연담은 서사의 초반부부터 결합하여 한 남성 대 두 여성의 결연 과정으로 서술되며, 영웅담과 여성 우위의 구도를 바탕으로 결연의 지연이 발생한다. 결연의 지연은 부계의 결연 의지와 장벽계, 윤선강의 결연 거부 의식이 상충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서술 시각은 여성 인물인 장벽계에게 모이고 있다. 장원홍-부월혜의 결연담은 두 인물의 애정에 기반한 결연 과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원홍에 대한 부월혜의 절개가 드러나는 사건들이 삽입돼 가문내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과 여성 수난 양상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원홍-부월혜의 결연담에서도 부계-장벽계-윤선강의 결연담처럼 여성인물인 부월혜에게 서술 시각이 모인다. 즉 『부장양문록』은 동일한 시간 축에 여러 사건이 중첩되면서 장벽계와 부월혜가 중심이 되는 서사를 대비적으로 교차 서술하여 영웅담, 남장결연담, 여성수난담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여성 영웅소설과 재자가인소설, 가문소설의 양상을 다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공이 더욱 아람다이 녀여 칭찬호고 빙물을 구호니 쇼제 부싱의 금낭을 일신의 진여 천이의 유락호나 즈기 몸과 갓치 등히 역여 이의예 일러더니 혼변 긴 싱각이 갑히 밋츰뎌 윤어스기 금낭을 현왕 쇼성이 부모 주신배 이 금낭을 즈싱 보박를 숨아습더니 빈천한 선배 빙물할 거시 업스오니 금낭을 저호와 박연동낙의 증험이 되게 호오나³⁶⁾

위의 인용문은 남장한 장벽계가 윤선강과 정혼을 하면서 부계에게 받은 빙물을 그녀에게 넘겨주는 장면이다. 장벽계는 남성에게 종속된 삶을

36) 『부장양문록』, 권지 일, 19장.

살 수 없다는 의식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부계의 빙물을 윤선강에게 쉽게 넘겨준다. 그래서 장벽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현재야 우형은 진실노 부한님의 슈건 맞든는 쇼님은 답답히고 녹눅히여 못히리니 현재 우형을 디신흐라”³⁷⁾라고 이르며 부계에 대한 정절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의중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장벽계가 윤선강에게 빙물을 넘겨주는 대목에 이어 곧바로 부월혜가 장원홍에 대한 수절의 뜻을 품는 장면이 서술된다.

장벽계와 윤선강이 정혼을 한 이후 서술의 시점은 부월혜에게 넘어간다. 부월혜는 장門이 북해 오랑캐의 습격을 받아 멸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원홍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원홍에게 빙물로 받은 부채를 들고 통곡하며 수절의 뜻을 품는다.³⁸⁾ 특히 빙물인 부채를 간직하고 평생 부모 슬하에서 지내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장벽계가 윤선강에게 부계의 빙물을 쉽게 넘겨주는 대목과 대조적이다.

엇지 이제 상서의 잊지 아니므로 금석상약과 천지증명을 저바리잇가
다만 당가의 신물을 슈둥의 머무려 평싱을 부모 슬하의셔 맞고져 히느
다만 원이니 당상서의 부즈 빅골을 츠지 못히고 혼빅을 불너 제전 향화
을 밋드지 못흔 전은 명교의 죄인이 될지라³⁹⁾

위의 인용문은 장원홍에 대한 부월혜의 정절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월혜는 장상서 부자의 혼백을 불러 제전, 향화를 만들지 못하면 명교의 죄인이라 말하며 장門의 며느리로서 소임을 다하려 한다. 부월혜의 이런 모습들은 장원홍의 혼백이라도 찾겠다며 가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37) 『부장양문록』, 권지 이, 25장.

38) “당공주의 붓치를 들고 시여의게 붓들여 덩당의 이르러 통곡히니 … 쇼제 읍고 왈 구고와 지아비 죽으미 그 머나리 된 즈 엇지 밧상히난 네을 폐히리오” 『부장양문록』, 권지 일, 22장.

39) 『부장양문록』, 권지 일, 23장.

부월혜가 장원홍을 수절하며 가출을 한 이후 서술 시점은 다시 장벽계에게 넘어간다. 여기서 장벽계는 부계와 다시 만남을 이루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부계와 교우한다. 이때 장벽계는 자신이 여자임을 한탄하며 남자였다면 부계와 교우하여 공업을 달성했을 것이라 생각한다.⁴⁰⁾ 장벽계의 이러한 모습은 직전 서사에서 부월혜가 장원홍의 혼백이라도 찾겠다며 가출을 결행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부계-장벽계의 결연담과 장원홍-부월혜의 결연담이 교차 서술됨에 따라 남성주인공인 부계와 장원홍 또한 동일한 시간 축의 사건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 음서찰은 스류의 입으로 못 할 말을 필지의 너어서 남의 내간의 왕니하고 금야의 담을 너어 문을 췌여 모야무지 예 드리와 위엄으로 험박고져 흐니 방탕무례배도 못 할 형사를 흐시니 군즈의 수형도 유익지 아닐거시니 첩이 비록 잔열흐나 위흐여 행복지 아니흐며 첩이 비록 용우흐나 사문일푼이오 이 집이 비록 누추흐나 공후 퍽상이 이 엇지 조정명사의 도리로 교만흐여 압썸 비복의 집의 가 천 보듯 흐리오⁴¹⁾

㉡ 세세히 싱각흐미 작야스 명명흐니 크게 뉘웃츠 스스로 탄식흐되 너 형연 삼오의 평싱 추호도 예를 어기미 업더니 남의 권의 광약을 과음흐고 성현의 명교를 어기미오 성에 전 규수를 야밤의 차즈 밀밀한 말이 니적의 형실을 효측하여시니 엇지 신명의 붓그럽지 아니며 저 여즈의 어람 갓흔 형실의 나의 무식불닌흐를 통한이 역여 일병이 될지라 엇지 한흠지 아니며 익달지 아니리요 천 번 뉘웃고 만 번 한흐여 일 번 필연을 나와 뉘웃는 뜻으로 글을 지어 음영흐더라⁴²⁾

40) “자탄왈 너 만일 남즈러면 부한님으로 중마부우되여 지심지기로 군상을 돕고 조상부모여 효로 빗니면 엇지 쾌락지 아니리요마는 몸이 여즈라” 『부장양문록』, 권지 이, 7장.

41) 『부장양문록』, 권지 이, 53장.

42) 『부장양문록』, 권지 이, 76장.

인용문 ㉠과 ㉡은 각각 부계와 장원홍의 서사이다. ㉠에서 부계는 결연에 대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밤에 담을 넘어 윤선강의 처소에 침입한다. 부계는 이미 윤선강에게 서찰을 보내 정상적인 혼인을 하라고 충고한 바 있다. 이에 윤선강은 부계의 행위가 부덕하다는 것을 밝히고 예를 지키라며 꾸짖는다. 하지만 부계는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선강이 빙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명 군즈라도 굶혀 그르다 아닐지라”⁴³⁾라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반면 장원홍은 부월혜와 태항산에서 다시 만남을 이룰 때부터 남녀는 유별하다는 의식으로 내외하는 모습을 보인다. 술에 취한 장원홍이 색기를 참지 못해 야밤에 부월혜의 처소를 찾지만 부월혜의 충고⁴⁴⁾에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순순히 물러난다. 인용문 ㉡에서 혼인을 하기 전 야밤에 규수를 찾아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책하는 장원홍의 모습은 남녀유별에 대한 예를 철저하게 의식하는 것이다. 이런 장원홍의 면모는 부계가 윤선강의 처소에 침입한 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상과 같이 『부장양문록』은 부계와 장벽계의 서사에서 장원홍과 부월혜의 서사로, 그리고 다시 부계와 장벽계의 서사로 교차 서술하여 동일한 시간 축의 여러 사건들이 중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편의 분량을 확보함은 물론 등장인물들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서사 전개의 핵심 인물인 장벽계와 부월혜의 의식 지향을 살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파악해 보겠다.

43) 『부장양문록』, 권지 이, 51장.

44) “군즈 첫 뜻슬 직희지 아니셔 밤야 무인 시의 은근흔 거름이 범답지 못히시니 사류의 슈형의 크게 희로울가 흐느이다 첩이 비록 무식흔 군즈랄 위히녀 항복지 아니흐느이다 복망군즈는 거름을 두루혀심을 바라느이다” 『부장양문록』, 권지 이, 74장.

4. 『부장양문록』의 주제의식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장양문록』은 대극적 형상을 지닌 인물들이 교차 서술되며 서사가 전개된다. 이때 복수의 여성주인공은 외양과 성격이 대조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각각 지향하는 의식 또한 양극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인공들의 의식지향과 면면을 비교 고찰하여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복수의 여성주인공들은 어떤 수식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니옥의 홀눈하고 광념과 일만즈티는 강고올 기우려도 가히 티적히리 업고 천품이 화려통달히여 규등의 티업고 금금히 군즈의 풍도와 영웅의 양이 이시며 성효와 지덕이 고인성즈의 지나니 부피 최이 관동히미 장둥 보옥이오 그 미드미 바야히 비록 여지나 타일 문호올 창히리라 히더라⁴⁵⁾

위의 인용문은 서사의 초반부에서 장벽계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외양 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인물이 지닌 능력이나 의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식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물의 본질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장벽계는 군자의 풍도와 영웅의 양, 성자, 문호의 창건 등 흔히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수식되고 있다. 이 중 “규등의 티업고”를 통해 알 수 있듯 그녀는 일반적인 여성과는 달리 남성의 기질과 풍채를 타고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스스로 여공을 폐하고 천문서와 육도삼략을 익히며 남성의 도를 실현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타고난 남성적 기질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거부하는 의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장벽계와 진도람의 대화에서 진도람은 총 세 번에 걸쳐 부계와의 혼

45) 『부장양문록』, 권지 일, 2장.

약을 지킬 것을 역설한다.⁴⁶⁾ 이는 장벽계와 부계가 전생부터 운명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도람은 장벽계에게 부계와의 결연을 이루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장벽계는 “쇼예 진실노 규합의 남의 슈건 바드느 쇼임은 결단코 핁치 못흐리니다.”⁴⁷⁾라고 말하며, 운명을 과감히 거부하고, 여성의 종속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산했던 가족이 재회한 후 아버지인 장상서가 남장을 벗고 부계와의 혼약을 지키라고 명하자 “소녀 진전 소을 짓고 인슈를 드리고 두문불출흐오른 덕인의 명디로 흐오려니와 육년 남장의 당당흐 공후 분칠흐는 녀즈되여 부한님의 슈건 바드느 소님은 춤아 녹녹흐고 갑갑흐녀 못흐리로소이다.”⁴⁸⁾라고 말하며 다른 것은 모두 명에 따르겠으나 남성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것만은 하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로 보았을 때, 장벽계가 女道, 특히 부계와의 결연을 극구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종속된 삶의 거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벽계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운명을 과감히 거부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의식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장벽계가 보이는 이러한 지향점은 일반적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인공이 보이는 탈종속 의식과 합치한다.⁴⁹⁾

만일 비복들 입으로 말이 누설흐여 나의 핁식을 슬에 창설흐면 닉규
의 아니요 흐물며 부가의 구혼을 무어시라 밀막으리오 찰흐리 심슨의
즈최을 숨겨다가 천지 인지 썩시는 날의 응과흐여 요행 득의흐면 선체

46) 진도람은 장벽계에게 부계와의 결연을 꼭 이루라고 강조하며 말하는데, 이는 죄상을 나열할 때 한 번, 전생을 가르쳐 주면서 한 번, 헤어지기 전 마지막 당부의 말로 한 번, 총 세 번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

47) 『부장양문록』, 권지 일, 12장.

48) 『부장양문록』, 권지 삼, 18~19장.

49) 『옥주호연』의 여성주인공인 자주, 벽주, 명주와 『방한립전』의 여성주인공인 방관주 또한 여도를 폐하고 무예를 연마하여 입신양명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공명을 세워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후사를 빛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이는 곧 탈종속 의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형여 상형의 의심을 쓴고 후리의 부모 칭환형신 소회를 고달하고 진정으로 빌면 설마 부되 나의 음양 변형는 지원을 좇지 아니시랴⁵⁰⁾

위의 인용문은 장벽계가 윤참정의 집에서 나온 후 응과를 결심하는 대목이다. 장벽계는 응과를 통해 여성의 규범을 전복시키고, 남성에게 종속된 삶을 거부하는 의식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벽계가 남성의 삶을 회구하는 것은 종속된 삶에 대한 거부 의식에서 비롯된 바,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의 규범을 과감히 전복시키면서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반감 의식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장벽계의 이러한 의식은 “성별 규범과 음양론의 틀을 과감히 뛰어넘음으로써 가부장제 하에서 억눌린 여성들의 소망을 대변하면서도 현실의 보편적 여성상과는 거리를 보이”⁵¹⁾는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인공과 상통한다. 즉 장벽계는 종속의 거부와 규범의 전복을 통해 고착화된 성역할을 과감히 거부하고, 자의식을 진취적으로 실행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교차서술을 통해 후반부의 서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월혜는 장벽계와 대극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이다.

월혜 옥용화터 경히 쫓치 봉올고 언어초명이 범인과 크게 다르니 부모게와 편녀를 편이허더라 ... 소제 년니 십이세라 절세한 용모와 아람다운 티되는 가히 셔즈와 비연을 닝쇼하고 덕행과 절의는 반쇼를 효측하며 열부의 한번 죽으를 쾌히 녀여 ... 고요히 열여전을 잠심하다가도 열부의 입결스의 다다라 칙을 덥고 세번 탄식하며 조용한 밤과 남 업슨 고디 주루화협을 적시더니⁵²⁾

50) 『부장양문록』, 권지 이, 1~2장.

51)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연구』 제3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121쪽.

52) 『부장양문록』, 권지 일, 2장, 22장

위의 인용문은 부월혜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장벽계가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들로 수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월혜는 옥용화태, 꽃, 절세한 용모, 아름다운 태 등 가인을 지칭하는 표현들로 수식되고 있다. 또한 표면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덕행과 절의를 강조하며 열부로서의 면모를 함께 드러내고 있어 주목해 보아야 한다.

부월혜는 반소⁵³⁾에 비견될 만큼 열부로서의 기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의를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을 흔쾌히 여기기도 하고, 항상 『열녀전』을 가까이 하며 열부의 이야기에 탄복하고 눈물을 흘린다. 특히 장원홍이 북해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12세의 어린 나이에 수절을 결심하는 모습은, 부월혜를 통해 드러내려는 의식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명일 열여전을 잠심흐라 교훈하시며 모친니 이리시디 사라 욱되는 거
산 죽어 즐거움만 갖지 못흐다 언어간의 교훈하시미 심곡의 즈뭇고 진
교역의셔 당상셔 교명이 임의 이변의 머무러시니 백이숙제는 엇던 사람
이완디 국녹을 먹지아녀 숙양의 괴스하시니 인정남녀 다름 업스리니 혼
번 과히 곁흐여 미흐의가 당상셔고 사례흐려 하나이다 벽상의 이 검을
색혀 즈문흐니⁵⁴⁾

부월혜는 여성이 수절하는 것을 백이숙제의 절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여성에게 열 의식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살아 욱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며, 적극적인 열부로서의 의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수절을 반대하는 부모의 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벽에 있는 검을 뽑아 자결을 감행하는 모습은 여성이 지

53) 후한 때의 班昭(48~117)는 《韓書》를 집필한 여류 학자로서 《여계》의 저자이다. 《여계》에는 부녀가 갖추어야 할 四德으로 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수절하면서 높은 절개를 지켜 주위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54) 『부장양문록』, 권지 일, 24장.

켜야 할 규범 중 으뜸이 열 의식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부월혜의 적극적인 열 의식은 위왕에게 납치되어 후궁이 될 것을 강요받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부월혜는 위왕의 납치와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부귀를 탐하고 포환을 두려 이적의 횡실을 효측하리오 다만 쾌히 죽여 널녀 조희등 참여코져 호노라”⁵⁵⁾라고 말한다. 그녀는 위왕의 후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켜 『열녀전』에 등장하는 열부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장양문록』은 대극적으로 형상화된 두 여성인물을 교차적으로 배치하여 결연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조적인 의식지향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때 장벽계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婦德 보다는 규범의 이탈과 탈종속에 대한 개인의 욕망을 관철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대부가 여성으로서의 이상적 인물상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영웅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부계에 대해 상대적 우위의 관계에서 시종일관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작품의 종결부까지 화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장벽계의 이러한 모습은 진도람을 통해 부정된다. 진도람은 여성의 규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서사의 초반부부터 장벽계의 네 가지 죄를 역설하며 그녀를 질책하고 있다. 이때 그녀의 죄는 여공을 폐하고 남성의 도를 행했으며, 홀로 적진으로 진격하여 부모와 생사를 함께 하지 않았고, 남장을 통해 지아비를 섬기는 것을 죽기로써 거부한 것에 있다.⁵⁶⁾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

55) 『부장양문록』, 권지 사, 37장.

56) “노인이 청파의 막대를 노코 안석을 정히하여 꾸지져 왈 그디 십이세 규동 여자로 침선방적을 바리고 남자의 소임을 하니 그죄 한가지히오 난시를 당하여 부모를 쫓와 사성을 한가지로 하니 여자의 정정흔 리이여늘 망영된 의사로 좀쳐로운 귀운을 밋고 비슈을 끼고 적병을 좇쳐며 다시 복의셔싱으로 대진을 엿보

성의 일반적인 규범은 첫째, 침선방적에 힘쓰고, 둘째, 부모와 사생을 한 가지로 하며, 셋째, 지아비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벽계는 여성에게 부여된 보편적인 규범을 전복시키는 일탈적인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세상을 속이고 부모와 명교를 벗어나는 의식을 보인 것이다. 이로 보았을 때 주체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규범을 일탈하는 면모를 보이는 장벽계의 삶은 『부장양문록』의 작가에게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장벽계의 결핍을 채우는 인물로 윤선강이 설정된다.

윤선강은 남장결연담을 통해 장벽계에게 거세된 여성성을 보충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장벽계는 남성적 삶을 회구하며 일국의 대신으로 자리 잡고, 여성성을 거세한 채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여성으로서의 도덕성을 찾기 힘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장양문록』에서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덕목이 열행임을 상기할 때, 윤선강은 장벽계의 결핍된 여성성을 채우고 의리의 표상을 드러내면서 열 의식을 보충하는 기능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장양문록』의 주제 의식이 단편여성영웅소설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과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현경전』, 『홍계월전』 등 단편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인공은 주체적으로 자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인공을 통해서 여성의 정체성 찾기가 주요하게 나타나며, 남성에 대한 종속의 거부, 규범의 일탈과 반발 등의 의식지향을 보인다.⁵⁷⁾ 하지만 『부장양문록』에서

고져 하니 그 죄 두리오 북히 적거홀 제 그디 엄구 부시랑의 어약이 금석궤고 금낭과 파경의 빙물이 황천과 일월이 증빙이여날 문득 밋음가온대 비만혀여 머리를 움쳐 남의 지어미 소임을 죽기로서 말고져 하니 그 죄 세가지오 난동의 브득이 여화위남홀를 그옥히 갖거 타일 동신토록 세상을 속이고져 하니 그대 죄 네가지라 다 부모와 명교의 버셔나니 천지귀신을 속이련이와 그대 심천 형스를 내 엇지 비최지 못호리오.” 『부장양문록』, 권지 일, 9장.

57) 논자에 따라서는 여성영웅이 남장을 통해 남성의 제도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에서 진취성과 주체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여성영웅은 당대의 지배 윤리를 고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가부장제에 입각한 지

는 장벽계의 옆에 윤선강을 배치하면서 장벽계가 보이는 지향 의식들을 모두 결핍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대극적 인물인 부월혜를 긍정하며 규범의 이탈과 전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부월혜는 욕망을 절제하고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대부의 도리를 다 하는 인물로서, 장원홍에 대한 수절을 결행하는 모습을 통해 婦德 중에서도 열 의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때 부월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념의 형상은 고전소설 일반에서 흔히 등장하는 가인형 인물과 동일하며, 그 모습은 才色과 德을 두루 갖춘 이상적 여성상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이상적 여성상에 대한 면모는 전대 장편소설 양식인 재자가인소설이나 가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과 동일하다.

재자가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모두 가인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여기서 가인은 재색이 강조된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才의 측면이 부각되며, 때때로 재자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文才를 지”⁵⁸⁾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강조는 당시 사대부 남성들의 의식 속에 자리한 이상적 여성상에 대한 욕구가 투영된 것으로, 완벽한 여성과의 결연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문소설의 여성인물 또한 가인의 형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재자가인소설에서 才의 측면을 부각했다면 가문소설에서는 文才 보다는 현숙한 여인의 婦德을 부각한다. 이는 남성들이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상에 가장 가까운 면모로써, “개인으로서가 아닌 한 가정, 혹은 한 가문 속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기 때문이다.”⁵⁹⁾ 그래서 부월혜는 작품의 결말부에 이르기까지 장원홍과 화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서사 전반적

배권력을 긍정함으로써 파격적인 문제의식을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곧 여성영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문, 혹은 국가로 대표되는 당대의 기존 질서에 대한 수호와 그 속에서의 성공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하(2011), 앞의 논문, 139쪽.

58) 김정숙(2005), 앞의 논문, 63쪽.

59) 김정숙(2005), 앞의 논문, 88쪽.

으로 부월혜의 열행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며 정문을 부여 받는 등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⁶⁰⁾

이렇게 보았을 때, 『부장양문록』은 대극적 인물을 대조적으로 배치하여 규범의 일탈과 보수적 지향 의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결국 장벽계가 서사의 종결부에 이르기까지 부계와 화락하지 못하는 모습은 규범의 일탈에 대한 향유층의 보수적 의식이 투영된 결과인 것이다.

5. 결론

여성영웅소설은 단편과 장편을 구분해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⁶¹⁾이 제기된 이후 장편여성영웅소설의 다층적 성격을 주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장편여성영웅소설인 『부장양문록』의 다층적 성격과 장편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장편소설은 복수의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층적으로 전개된다. 이때 다층적인 이야기들은 단순히 분량을 확장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립된 여러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면모를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된 이야기가 별다른 변형을 거치지 않은 채, 한 편의 작품을 구성하는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이야기들은 한 편의 작품에만 국

60) “잇썩 적벽강두의 부소저의 절형과 교육의 정통을 금난의 삭여 정문호시고 부당 낭가의 전지나려 위로호시니 부당 낭가의셔 황감전유로 호여 식로이 통도호를 마지아닌느듯” 『부장양문록』, 권지 중, 1장.

61)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에서 장편여성영웅소설과 단편여성영웅소설은 작자층, 독자층, 유통방식, 미의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각 갈래에 따라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서사 요소가 존재한다. 가문소설의 쟁충담이나 재자가인소설의 남장결연담이 그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서사 요소는 그 작품의 갈래를 구별하는 서사적 특성으로 작용한다. 즉 처첩갈등, 고부갈등과 같은 쟁충담은 가문소설의 특징적인 서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쟁충담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가문소설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장양문록』은 여성주인공인 장벽계의 영웅담을 기저로 복수의 남녀 주인공들이 펼치는 결연담에 서술 시각이 향해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여성주인공의 영웅담은 ‘남장-수학-출정입궁-옹과급제-지위극대화-남장 해제’의 구조로, 결연담은 ‘만남-헤어짐-다시 만남’의 구조로 전개된다. 이때 여성주인공인 장벽계가 女道를 거부하고 남장으로 남성의 세계에 편입하는 점, 전란에서 영웅성을 발휘하고, 옹과에서 장원급제를 하는 점, 남장결연에서 女-女의 결연이 일어나는 점 등은 이 작품이 여성영웅소설의 자장 아래 재자가인소설의 요소를 결합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면서도 가문 내에서의 처처갈등과 고부갈등, 가문 외에서의 여성수난담이 전개되는 것은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이 교섭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즉 『부장양문록』은 여성영웅소설, 재자가인소설, 가문소설의 다층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이러한 특징은 곧 이 작품이 장편여성영웅소설의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장양문록』의 다층적 성격과 장편화 방식을 바탕으로 장편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특성 및 주제의식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부장양문록』,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 5권 5책 필사본.

『이현경전』, 사재동 소장본.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8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33~61쪽.

_____, 「〈부장양문록〉의 욕망 구조 연구: 남주인공의 욕망 실현 과정과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호, 우리어문학회, 2010, 95~119쪽.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태영,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서사의 확장과 장편여성영웅소설로의 전개 -〈이현경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66집, 겨레어문학회, 2021, 61~87쪽.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쪽.

이병직, 「〈傳張兩門錄〉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27~56쪽.

_____, 「〈이현경전〉의 후대적 수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 161~191쪽.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연구』 제3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111~144쪽.

장시광, 「〈하진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정서와 이중적 정체성 - 장르 결합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49권, 온지학회, 2016, 81~115쪽.

-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傅張兩門錄)>』, 『고전문학연구』 제19권, 한국고전문학회, 2001. 207~235쪽.
- 정준식,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상관성』,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37~61쪽.
- _____,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31~59쪽.
- _____,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집』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51~74쪽.
- 채윤미, 『<부장양문록>연구: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5.
- 한길연, 『대하소설의 요약 모티프 연구 - 미혼단과 개용단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269~300쪽.
- _____, 『국문장편소설과 소설사적 전변 - 단편여성영웅소설과의 교섭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50집, 한국고소설학회, 2020, 5~32쪽.

<Abstract>

A Study on the Multilayer personality and
long storytelling methods of
『BooChangYangMunrok』

Kwak, Su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pic and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of 『BuJangYangMunrok』, and to further examine the feature-length method and subject-consciousness. 『BuJangYangMunrok』 shows the aspect of multi-layered work featuring many male and female characters. In the first to third volumes, the story of marriage between the "Bu Gye" and the "Jang Byeokgye" is told based on the hero story of the "Jang Byeokgye" and the story is told mainly in the fourth to fifth volumes. Therefore,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the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of 『BuJangYangMunrok』, volumes 1 to 3 and 4-5 must be separated to examine the epic characteristics of each volume.

First of all, we checked the aspects of the hero story and the marriage story in the first half, which corresponds to the first and third volumes of 『BuJangYangMunrok』. Hero stories are developed as a generation of female protagonists, a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structure of hero stories and the order of war stories. The hero story of 『BuJangYangMunrok』 is a shortened version of the story of the war while the heroine participates, and the first part of the story focuses on the marriage process leading to the "Bu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Jang Byeokgye-Yoon Seongang” rather than the hero story of the heroine. In the process, the story of a man-dressed marriage, which depicts the marriage process between one man and two women, as well as the story of 『BuJangYangMunrok』 female hero novel, can be confirmed.

If the story of a hero and a marriage story is told in the first to third volumes, the story of Bu Wolhye female hardships is described in the fourth to fifth volumes. Bu Wolhye has been through various hardships and is finally protecting her love for Jang Wonheung. This is where the narrative customs, which are common in family novels, are structurally embodied. In other words, 『BuJangYangMunrok』 is to create a complex characteristic that organically combines the narrative structure of female hero novels, family novels through the story of heroism, marriage, and women's hardships.

On the other hand, in 『BuJangYangMunrok』, multiple marriages act as the basis for the whole story. These multiple marriages minimize intervention in each other's narratives, and while proceeding individually, they are described crosswise to secure the volume of the long story. In particular, the center of the narrative crosses the narrative of Jang Wonheung and Bu Wolhye from the marriage of Bu Gye and Jang Byeokgye, and the narrative of King Wei is at the center of this organic trend.

Key Words: BuJangYangMunrok, LeeHyeongyeongjeon, Full-length Heroine Novels, Multi-layer structure, Combination of genres

■ 논문접수 : 2022년 11월 30일

■ 심사완료 : 2022년 12월 13일

■ 게재확정 : 2022년 12월 19일

